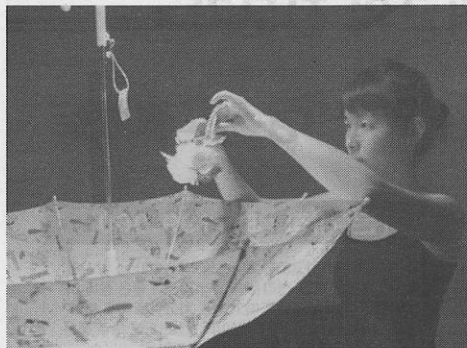


젊은 예술가, 채현정씨의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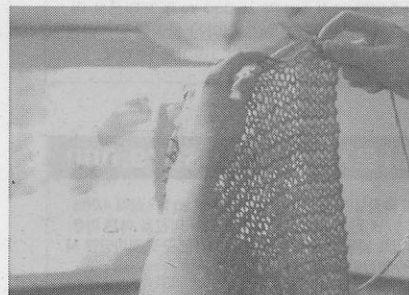
따뜻한 퍼포먼스, 사람에 대한 배려, 영재교육



“원래 퍼포먼스는 다양한 예술 장르가 모여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장성이 중요해요. 퍼포먼스는 일단 올리고 나면 비디오나 사진으로 흔적을 남겨도 그 자체는 없어지기 때문에 즉발적이예요.”

-여름 프로젝트 하나, 퍼포먼스

지난 8월에 서울 인사동 갤러리 율에서 Dear Mom(사랑하는 엄마)이란 이름으로 퍼포먼스를 펼친 예술가 채현정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파격, 반항, 전위, 기괴한 표현이 맞을 듯한 퍼포먼스도 따뜻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지난 2001년 뉴욕에서 공연한 'Dear Grandma'의 연결선 상에 있는



작품으로 채현정씨의 어머니를 소재로 어머니를 위해 만든 작품이다.

8월 '사랑하는 엄마' 퍼포먼스시 채현정씨는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비를 막아내는 우산을 뒤집어 무언가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는 매개체로 사용하였다.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우풍이 센

집에서 우산을 거꾸로 매달고 커다란 천을 늘어뜨려 임시 천막으로 우풍을 막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언제나 부지런하게 뜨개질을 해서 저희를 입히셨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 어머니의 땀줄을 상징하는 빨간 실로 작품 내내 엄마와 자신 사이의 긴긴 인연의 줄같은 뜨개를 했어요.”

지난 번 뉴욕에서 할머니를 위한 퍼포먼스를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럼 나한테 언제 해줄래”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 말이 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위한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작품을 통해 그는 지난 세월 한국에 있는 그의 어머니와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나누어온 이야기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퍼포먼스는 한국 대학 재학시절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연필심으로 머리카락을 그려서 아이덴티티를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화면의 위에서 아래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며 머리카락 긁는 작업을 했어요. 노동

이 참 많은 작업이었는데 일단 작품이 완성되면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작업에 어떻게 그림 보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시작했어요.” 고민 중 97년 '회로도'란 퍼포먼스팀의 작품을 접하게 되고 그곳에 투신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집단 작업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연출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듬해 자신만의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처음 만든 작품은 나에 관한 거였어요. 화장을 지우고, 구루프를 말고, 바둑 두고, 화분에 물 주는 동작들을 반복해서 저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의 작업은 유학으로 이어진다.

뉴욕 유학 시절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 함께 가난한 이민자들에게 퍼포먼스를 통해 그들을 표현하고 표출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런 과정들이 그에게는 참 소중한거였고, 그리고 'Dear Grandma'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위로의 퍼포먼스를 펼쳤다. 그것이 올해 어머니를 위한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하는 것이 그의 퍼포먼스의 핵심인 듯. 이쯤 되면 퍼포먼스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따뜻할 수도 있을 듯.

-여름 프로젝트 둘, 영재교육

채현정씨의 또 다른 여름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인디애나에 위치한 퍼듀(Perdue)대학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교사다. 아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영재교육 교사의 임무였는데 현정씨는 이를 충실히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재(gifted child)여서 인지 아이들

이 영화 1초가 24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해 내었어요” 그가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에서 가르쳐 준 것은 클레이메이션이었다. 아이들은 제각각 형형 색색의 점토를 가지고 스토리를 지어내고 제법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새로운 프로젝트, 교육

영재교육 프로그램 이후 그는 요즘 미술 교육에 나서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창의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반복적인 연습이 부족하고, 한국에서는 창의력보다는 연습 위주로 교육이 되어 재주는 느는데 뭘 그려내야 하는가 문제가 되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만큼 기교와 창의성을 병행하도록 교육할 생각입니다.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 아이들에게 도서관 이용해 자신들의 소스를 찾아내도록 돕고 많은 예술적인 체험들을 하게하고 싶어요.” 교육자로 시작하는 예술가 채현정씨의 비법이다. 그 외에 예술가 채현정 씨에 관해 궁금한 점은 408-453-2423나 hjhc@hotmail.com로 문의.

(송미령 기자)

songmi@SFNews.com

▲ 프로필 : 채현정씨는 홍대회화과, 동대학원 졸업, 뉴욕대 대학원 '퍼포먼스 스테디' MFA,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 '움직임과 테크놀로지' 학과 MFA 재학중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근교 산호세에서 작업중으로 스페이스인 미술학원을 설립했다

